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최 영 찬[†]
(제주대학교)

Study on the Solving Conflicts between Fishing Village Community and Residents in using Community Fishing Ground

Young-Chan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 the conflict factors in using community fishing ground and their solutions, some conclusions are derived with the survey for fishing villages, residents, tourists as follows:

Jeju Island has beautiful sceneries with seas in all the directions and so remarkable potential as personal experience fishing vill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logical tourism in each fishing village, systematic,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management systems through decision making with residents in fishing and non-fishing villages are demanded. For tourist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s for marine and swampy land are needed first of all. Next, economical profit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have first priority, and also individual standards for each village are urgently prepared based on the results of basic research on each village. Finally, educations on environment and fishing village with professional tourist guide are needed. Ecological protect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s concern, and financial support could solve residential conflicts and make Jeju Island a Mecca of local fishing village tourism.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s. Marine and swampy land. Fishing village. Local government's

I. 서론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대규모 관광 개발에서 탈퇴하여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일환인 생태 관광이 주목 받

고 있다.

제주도 연안은 주변해역의 독특한 해양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마을 어장인 제1종 공동어장 (수심 10m이내)등은 어촌계 관리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마을 어장 관리주체인 어촌계와 비어촌계

[†] Corresponding author : 064-754-3433, ycchoi@jejunu.ac.kr

* 본 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 2008년도 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회원인 마을 주민간의 마을 어장 이용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민 관광형태의 변화 속에서 제주마을 어장도 관광객의 이용욕구 표출로 제주도의 수중 체험관광과 휴양형 해양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체험어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어패류 자원에 대한 수산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였으며, 그 자원량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 체험어장에서는 어린 개체의 포획이나 산란기 동안의 어획금지 등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여름부터 여름까지는 이들 패류의 산란기로 추측되나 아직 패류의 번식주기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 어장 이용과 관리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주도의 어촌관광과 자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공간적 범위

제주시 지역 어촌마을 중 구좌읍 동북리, 김령리, 월정리, 하도리, 종달리 등 5개 마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최근 3년간 관련통계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3. 수행 방법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어촌계원, 비어촌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의 분석

1. 마을어장의 관리 주체인 어촌계의 구성

1) 어촌계 현황

<표 1>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계현황(2007년도기준)

읍면동별	구분 어촌계 수	어촌계원수(명)			비고
		계	남	여	
제주시	56	7,663	1,927	5,736	
서귀포시	44	5,932	1,615	4,314	
합 계	100	13,595	3,542	10,05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 현황은 총 100개이며, 어촌계원은 13,595명으로 이 중 여성이 10,050명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3,542명으로 26.1%이다.

2) 잠수어업인 현황

<표 2> 행정시별·연령별 잠수어업인 현황(단위: 명)

구분	계	30세 미만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제주시	3,004	-	7	220	621	1,034	1,122
서귀포시	2,275	-	3	126	544	980	622
합 계	5,279	-	10	346	1,165	2,014	1,744
비율 (%)	100	-	0.2	6.6	22.0	38.2	33.0

잠수어업인 현황은 총 5,279명이며, 제주도 지역은 3,004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지역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의 93.2% 차지하고 있으며, 30세미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최 영 찬

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2007년 어촌별 마을 어업

① 패류

2007년도 제주지역 마을어업 패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은 각각 1,144,894kg과 3,305,631천원이며, 그 중 소라가 1,106,075kg과 2,233,251천원으로 패류 생산량의 96.6%이고, 금액으로도 67.6%를 차지하고 있다.

전복은 2,171kg으로 226,629천원으로 패류 생산량의 0.2%이나 판매금액으로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오분자기는 28,202kg으로 818,889천원으로 패류 생산량의 2.5%이나 판매금액으로는 24.8%를 차지하고 있다.

② 해조류

2007년 제주지역 마을어업 해조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은 각각 5,513,009kg과 4,516,298천원이며, 그 중 톳이 1,172,836kg과 790,415원으로 해조류 생산량의 21.3%이고, 금액으로는 17.5%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고 있다.

천초는 2,942,926kg과 2,889,220천원으로 해조류 생산량의 53.3%, 금액으로는 64%를 차지하였다.

갈래곰보는 16,406kg과 52,927천원으로 해조류 생산량의 0.3%, 금액으로는 1.2% 차지하고 있다.

감태는 1,171,128kg과 499,291천원으로 해조류 생산량의 21.2%, 금액으로는 11.1%였으며, 기타는 209,713kg과 284,393천원이었다

③ 극피류

제주지역 2007년 마을어업 극피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은 120,201kg과 2,307,254원이며, 그 중 성게는 46,908kg과 1,717,034천원으로 극피류 생산량의 39.0%이고, 금액으로는 7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어는 34,338kg(극피류 생산량의 28.6%)과 142,718천원(극피류 판매금액의 6.2%)이었으며, 해삼은 21,162kg(17.6%)과 272,077천원(11.9%)였고, 마분성게(숨)은 2,940kg(2.4%)와 96,081천원

<표 3> 2007년 패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 (단위:kg/천원)

구분	계		소라		전복		오분자기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144,894	3,305,631	1,106,075	2,233,251	2,171	226,429	28,202	818,889	8,446	27,062

<표 4> 2007년 해조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 (단위:kg/천원)

구분	계		톳		천초		갈래곰보		감태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513,009	4,516,298	1,172,836	790,415	2,942,926	2,889,220	16,406	52,979	1,171,128	499,291	209,713	284,393

<표 5> 2007년 극피류 생산량 및 판매금액 (단위:kg/천원)

구분	계		성게		문어		해삼		마분성게(숨)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20,201	2,307,254	46,908	1,717,034	34,338	142,718	21,162	274,077	2,940	96,081	14,923	77,344

(4.2%)이였으며, 기타는 12,923kg과 77,344천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체험어장 개방 현황

1) 유어장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해 유어장제도를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이는 해양관광객 어촌 흡수, 어업의 소득창출과, 어장이용 관련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점진적으로 해소 및 해양개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은 지정면적이 225.3ha, 이용객수는 2007년 12월31일 현재 도외 관광객이 전체 78.7%, 도민은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운영주체인 어촌계의 홍보, 관리 능력 부족으로 운영이 부진하며, 일부 유어장은 이용료(1일1인당 5만원) 부담으로 유어장이 운영의 부재로 어촌소득향상보다는 해양생태계 훼손이 제기되고 있었다.

2) 바닷잡이 체험 어장 개방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닷잡이를 통해 고향 어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다시찾고 싶은 어촌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썰물 시 마을어장 일부를 개방해 바닷잡이 체험어장으로 운영하여 체험관광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할 방향으로 30곳 26개 지역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3. 마을어장의 개발과 갈등 구조

일반적으로 해안마을 주민들에게 내재한 어장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의 것 임(한규설,1993)과 현재 수산어법에 의하면 마을 앞 바다(마을어장)는 국가(시도지사, 군수)가 마을 어촌계에 한시적으로 임대해 주는 국유지이다.

1) 갈등의 구조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일으키는 마찰은 이해관계만을 다룸으로 적절한 보상 조건에 따른 타협안이 제시되면 갈등은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요인 별로 갈등이 증폭되거나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분묘 처리장 문제(전경수,1995)로 한 공동체가 결속 하거나 구조를 파괴하는 구성원간 갈등을 나타내는 사례를 보면 하수처리장의 방류구가 건물에서 바다쪽으로 직선 방향과 해도상에서 마을간 경계선의 차이선에 나타나고 있었다.

즉 건물에서 시각적과 지도상 어장의 경계로 행정 시설업과 바다의 생태적 조건의 차이에 서 구성원간 갈등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수산업법상 해녀들의 물질은 마을어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녀들의 작업공간 은 법적 구속력을 받는 공간이지만 어장은 국가의 재산으로써 한시적으로 임대한 공간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과 집단과 제도를 어우르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은 집단이 기주의로 쉽게 전략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 관광객간의 갈등 해소 방안

1) 조사대상

설문대상 260부 중 243부가 회수되어 통계분석 하였다.

어촌계원 여성이 54명, 관광객 중 남성이 46명, 여성이 50명, 비어촌계원 주민 93명 이었다.

2)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간의 의견대립

비어촌계와 어촌계의 마찰이나 의견대립의 내용은 응답자 대부분이 제1종 공동어장 이용이 금지되고 공동어장으로 부더의 이익을 어촌계만 독점하고 있다는데 있었다. (표 6)

<표 6> 어촌계와 마을주민들 간의 의견대립

의 건	응답비율
마을사람들이 바다(1종 공동어장)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여 마찰과 갈등이 생김	★★★★
동등한 권리문제(어촌계라는 특정 단체만 이익을 독점함)	★★★
양식장 허가조건 및 계약갱신 문제로 어촌계와 마을주민 간의 의견대립	★★★
양식장의 환경훼손에 따른 해녀들과의 마찰	★★
전통 관습처럼 행해지던 2월 그믐과 3월 보름 썰물 때 해산물 채취조차 막음으로써 주민불만과 갈등심화	★
주민과 어촌계원간의 구성이 정확하지 않아 문제발생(특히, 어촌계 자금사용 시)	★

3) 관광객의 어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

관광객들이 채취기간에도 어린 소라와 전복 등의 해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바닷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툇 양식장의 돌을 마구 뒤집어 바다 환경과 생물 생육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표 7).

<표 7> 관광객의 어장이용에 따른 문제점

의 건	응답비율
어린 소라와 전복 등을 채취하거나 채취 금지기간을 지키지 않음(어획량 감소와 어장 황폐화의 원인이 됨)	★★★★★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훼손	★★★
툇 양식장의 돌을 뒤집어 양식을 불가능하게 함	★★
해산물 도난(저장해둔 해산물 도난)	★
관광객을 빙자한 타지역 주민들의 해산물 채취	★

5. 제1종 공동 어장의 개방 방안

조사에 응답한 해녀들 대부분이 어장으로 부터의 기존 수익을 침해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 개방방안 및 기존 수익을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표. 8).

또한 개방에 따른 손실 보상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소라나 전복 등의 종패를 지원해주는 안과 마을 공동 소득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는 방

안 및 인공어초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고 있었다(표. 9).

<표 8> 1종 공동어장의 개방 방안

의 건	응답비율
유료 낚시터와 체험어장을 조성해 어촌계의 공동수입원 창출	★★★★★
일정 구역 개방(나머지 구역은 어촌계에서 관리)	★★★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홍보 및 판매시설(직판장 등)을 갖추어 관광객이 쉽게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해산물 채취에 따른 어촌계 수입을 지자체에서 보장 한다면, 1종 공동어장의 개방이 가능할 것임	★★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개방	★
이벤트, 축제 등을 개최함	★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계획을 세우고 운영방법을 배워 마을의 발전도모	★
개방은 불가하다	★

<표 9> 1종 공동어장 개방에 따른 손실보상방법

의 건	응답비율
종패지원(소라, 전복 등의 어패류)	★★★★★★★
양식사업 지원	★★★
관광객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향토음식점 개설지원	★★
마을공동 소득사업(자체사업) 지원	★★
휴게실, 작업장 등의 시설지원	★★
어촌계 식당이나 민박	★★
의료비 지원	★
개방할 수 없다(개발이 아닌 보전양식을 우선시해야 함)	★
인공어초 조성사업	★
해녀 및 어촌계원들에게 보상(개방한 어획량에 대한 보상금 지원)	★
해산물 판매장 개설(수입원의 다양화)	★
관광객에게 최소의 체험비용은 징수하고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함	★

6.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1) 비어촌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문 조사

비어촌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촌계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설문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의견이 많은 사항은 어촌계에 의해 관광객의 바다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어촌계와의 마찰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표 10>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의 건	응답비율
해산물 채취, 낚시 등의 체험활동 활성화(어촌계와의 마찰을 조정해야 함)	★★★★★ ★★★★★
종패사업(행정지원이 필요함)	★★★★★ ★★★★
시설확충(평의시설 및 다양한 부대시설)	★★★★★
넓고 좋은 모래해변의 해수욕장 지정 필요함(해수욕 할 수 있도록)	★★★★☆
돛단배 띄우기	★★★★
마을과 바다의 청정이미지 향상시키기(깨끗하고 풍부한 어장환경 조성)	★★★★
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친절도와 서비스 향상(태도와 호응도가 아직 많이 미흡함)	★★★☆☆
다양한 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 낚시, 요트체험 등)까지 가능하도록 허용	★★★☆☆
관광객 이용에 대한 규제, 제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없애야 함	★★★
마을 홍보 강화	★★★☆☆
즐길거리(장소) 더 마련	★★★
볼거리 및 경관요소 확충	★★★
이벤트행사(수산물 축제 등)	★★★
야경조성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
아이들을 위한 안전놀이 시설 확충	★★★
어촌계와 비어촌계의 구분이 없어져야 함	★★★
어촌계, 비어촌계, 행정기관의 의견일치가 필요함(토론회 개최 등이 요구됨)	★★★

2) 공동어장의 관광객 이용 방안

어촌계 공동어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의견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해산물 채취 등의 체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표 11> 공동어장의 관광객 이용방안

의 건	응답비율
영리목적의 활동이 아닌 경우의 해산물 채취 등의 체험활동을 장려함(분위기 조성 및 비용, 시설 등의 활동여건 개선)	★★★★★★ ★★★★
관광객에게 공동어장을 개방하는 것은 힘들(불가능함, 체험어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도 모래밭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해수욕 등의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채취를 금지한 스쿠버다이빙 등을 가하도록 하고, 시설을 완비함)	★★★★
공동어장을 비어촌계 및 관광객에게 전면개방	★★★☆☆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주변 연계 시설 개발	★★★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함	★★★
축제 등 일시적으로 관광객과 비어촌계가 어촌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개최	★★★
체험어장 확대	★★★
수산물 저가 판매	★★★
방파제를 50m정도 개발하여 낚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촌전문가의 해설관광을 가능하게 함	★★★
해녀들과 함께 해산물 채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프로그램개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
어촌계의 수확작업이 없는 계절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용시기를 설정하여 이용하도록 함)	★★★

3) 어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어촌체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

타났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표 12> 어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항 목	응답자(명)	순위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54	1
편의시설의 개선	48	2
어촌 고유의 숙박시설 조성	44	3
어촌관광이미지 및 관광홍보체계 강화(웹 사이트, 안내책자 등)	43	4
지역주민의 친절과 환대서비스	27	5
자연생태자원 및 어촌 고유의 경관보전체계 구축	24	6
주요 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상품화와 테마형 개발	19	7
어촌전문가의 해설 강화(어촌관광경영기술)	11	8
이용요금의 합리화	6	9

4) 관광객 입장에서 본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 어촌 체험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어촌체험마을의 먹거리가 단조로워 관광객의 먹거리 만족을 위한 향토음식점과 매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13> 어촌체험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

의 건	응답비율
매점, 음식점 등이 필요함(먹거리가 단조로움)	★★★★★ ☆
편의시설 부족	★★★★★
홍보 부족(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체험프로그램이 단조로움(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함)	★★★★★
환경개선 필요(쓰레기 많고 더러움)	★★★★
할인매장, 마트 등이 없어서 불편함	★★★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음(제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관광객 숙박시설 부족	★☆
지역상품(토산품) 부족	★☆
이정표 확충 및 개선	★
친절성, 서비스정신 부족	★
다양한 수산물물 채취할 수 없음	☆

IV. 결론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마을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제주 특별자치도는 4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어촌 체험마을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나다.

2) 각각의 어촌계 지역을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기 위해 어촌계와 비어촌계(마을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3) 어촌관광개발로서는 첫째 해양 및 습지 생태계의 보호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이익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셋째 각 어촌계 마을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마을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넷째로 환경교육 및 관광객에 대한 전문적인 어촌 관광가이드와 교육이 필요하다.

4) 지역별 어촌관광은 생태계 보호, 환경교육, 지역주민 참여, 지자체 등의 관심과 재정보 조 등이 해결이 되면 어촌지역 주민간의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도형 외(2000). 제주도 종달리 체험어장의 환경적 특성과 발전 방향, 제주도연구 18집, 15~171, 제주학회.
- 강미희(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서울대학교 농학박사학의 논문.
- 강민수(2000). 예래 생태관광마을 계획의 경과와 전망, 녹색평화, (1), 46~54.
- 김남조(2001).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217~246.
- 김동렬·김성일(2001). 생태관광 지표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공원휴양학회지, 3(2), 141~150.

- 김성귀, (1999). 21세기 제주도 해양관광 개발전략, 제주도와 21세기 해양정책 포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6:1~24.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재호(2000). 자연환경 체험학습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농림부(1996).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박광순(1998). 바다와 어촌의 사회경제론: 한·일 비교분석, 전남대학교 출판부.
- 박석희(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관한 고찰, *Tourism Research*, 제14호, 67~87.
- 박성쾌 · 신영태 · 옥영수 · 김정봉(1995). 어장 · 어항 · 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재호(1997). 국제관광과 섬: 병화와 아이덴티티, 제주도 연구 14집, 193~224, 제주도 연구회
- 신성식(2000). 강화도 주민이 실현하는 강화도 그린플랜 -강화도 생태관광 사례, 강화 발전 연구회.
- 양선아(1999). 지방의 '문화관광'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서호, 박창규(2000). 대안관광으로써 생태관광의 적용: 동강지역을 대상으로, 경기관광연구, 제4호, 83~104.
- 옥영수,(1992).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9.
- 옥영수 · 주우일(1984). 공동어장 이용합리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득연(1998). 지역사회 개발전략으로서 생태관광, 공간과 사회, 통권 제10호, 한울, 267~285.
- 이원희(1999). 강화도 장호리 갯벌 생태관광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태 조경학과 석사 논문.
- 장호찬 · 강미희 · 김성일(1999). 생태관광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향: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원휴양학회지, 175~184.
- 제주특별자치도(2008). 2008년도 해양수산현황,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전경수 · 한상복(1999). 새로운 세기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해양보호지역워크 요약집, 157~166.
- Augrusa, J. F., Guidry, J.(1999).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ya Rain Forest in Central America, First Pan-American conference proceeding, May, 19~21.

-
- 논문접수일 : 2009년 07월 0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09년 09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09월 26일